

말씀의 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민수기 2:1~2>

사순절 기간인 요즘 매일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백성을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출애굽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노예근성, 우상의 잔재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불순종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가나안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려고 훈련”하시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법도와 원리를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훈련” 하십니다. 이 훈련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라는 곳은 불협합입니다. 광야는 천국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 많고 불완전한 곳입니다. 이곳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옛것을 버리며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꿈꾸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훈련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수기 2장 1~2절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훈련을 하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디서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민수기 2: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장막을 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입니다. 12개 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각 텐트의 방향을 성막을 향해서 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텐트의 문을 성막쪽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집을 나고 들어가고 항상 그들 눈앞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일 수 밖에 없으니 백성들은 그걸 항상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것이 움직이고 하늘로 뜨면 짐을 싸서 옮겨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받은 백성에게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하십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확실치 되지 않으면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열두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27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3:28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라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아낙자손의 덩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훈련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 훈련되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악평합니다.

민수기 13: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매꾸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도매꾸기 같았을 것이니라

계속 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쳐다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다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에만 더욱 집중합니다. 길을 가는데 애들죽죽이 자기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돌아가는데 길이 험하니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보내어 그 백들에게 물리게 됩니다. 아마도 엄청난 통증과 고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제서야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민수기 21: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뱀을 바라본다고 독이 없어집니까? 지금 이 통증(문제)과 무슨 의학적인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뱀뱀은 모든 진에서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성막 주변에 달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뱀뱀을 본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늘 성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었다면 뱀뱀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지만 많은 수가 뱀뱀을 바라보지 못해서 죽었다는 것을 보면 훈련이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이 안되어 있으니 뱀뱀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훈련이 되면 문제와 통증에 집중하지 않고 일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불뱀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어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고통과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대위에 달린 뱀뱀처럼 현실의 고통과 문제에 처한 순간.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 같아보여도 치유와 해결은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해결됩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능력있어도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여기에도 숨어있습니다. 질서 있게 각 속한 지파의 방향 안에서 텐트를 쳐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없이 마음대로 아무곳이나 나의 삶의 자리를 정하는게 아니라 있어야 할 곳과 사명을 감당할 곳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직장도 학교도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오고가고 한다면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훈련입니다. 텐트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믿음 없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왜 통성으로 간절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삶에서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7년 3월 5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7. 3. 12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대표기도 ----- 김영희 집사

헌금

성경봉독 ----- 창세기 8:13~19

말씀선포 ----- 이강화 목사

기다림의 신앙

축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예배 : 금요일 오후 8:00

말씀의 샘과 영성의 강령이 있는
DURANNO CHURCH
두란노 교회

